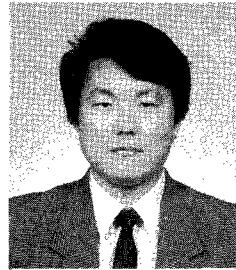


계란유통 개선은 품질 향상 우선시 되어야…



김 창 수
동방사료 마케팅부

우 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연간 약 80억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 수도권에서 약 35% 정도가 소비되어지고 있는데 대개 식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도 매년 증가를 보여 오고 있는데 '93년도에 61g을 기준하였을 때 180개 선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계란유통은 일반적으로 생산 농가에서 도매상(수집반출상)으로 넘어가고 다시 중간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매

상은 대개 1일 20만개의 계란을 취급하고 있으며 중간도매상은 1일 5만개 정도를 취급하면서 직접 수집과 배달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매상의 경우 마진이 개당 5원 이내여서 제비용을 계산하면 순이익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유자가 곤란하여 가격을 조작하여 시세차익을 노릴 수 밖에 없는 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질서가 흐트러지고 상인과 생산자 간에는 불신이 깊어져 품질향상에 관심을 갖는다기 보다 자기의 이익을 크게 하려는 가격절충이 지속되어 마찰이 커지고 있

다.

최근에는 양계조합이 지역별로 설립이 되어 집하장을 운영하여 계란유통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나 처리량이 적어 영향력이 없어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해 나간다는 의미는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계열화사업, 협업단지, 생산자 단체 등이 계란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G.P센터를 운영하여 계란유통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계란유통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말할나위 없이 계란가격고시제도이다. 때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어쨌건 계란을 출하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계란유통의 가장 큰 난맥상은 수급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홍정에 의한 가격결정이 존재하고 있어 유통경로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생산지에 저온창고나 기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보관기능이 없는 한계 때문에 생산되면 즉시 처분해야 하는 약점이 발생하여 유통질서가 더욱 문란할 수 밖에 없다.

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따라 위생란이란 개념으로 시작된 계란유통이 특수한 영양성분을 강화시킨 기능란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혼란되어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품질고급화란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보여진다.

지금까지 계란유통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다. 다음은 개선점과 품질고급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흔히 유통개선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개선은 쉽게 되지 못 한다. 즉 변화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전과 같이 농장을 경영하고 나 아닌 남이 변화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구조변화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제일 적극적이어야 할 주체는 바로 생산자 자신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양계인들이 판매에 나설 수는 없지만 생산자를 대신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어 조합의 집하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에 맞게 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G.P센터 운영에도 참여하여 빠른 시일내에 판매망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지역 단위별로 협업체 형태로 계란 유통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현재도 교통난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앞으로는 지역별 유통화시대로 전환해 나가는 준비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본다.

생산지에서 판매점(소매점)으로 유통단계를 너무 단순화 시켜도 차후 수입산물이 들어 올 경우 그들의 시장접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기능란은 조합이나, 식품연구원,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품질인증창구를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유통개선에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품질고급화 하면 우선 외장만 화려함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같은 시각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 물론 포장의 중요성도 생각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가급적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착을 유도해 나가야 함이 숙제라 할 수 있다.

안정성 면이나 신선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시장기능에 따라 생산이 조절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될 수 있게 생산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계란유통은 보다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체』